

중국 3대 국내영화제 연구:

금계장(金鷄獎), 백화장(百花獎), 화표장(華表獎)을 중심으로*

강 내 영**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중국 3대 국내영화제 분석
 1. 금계장영화제(中國電影金鷄獎電影節)
 2. 중영화백화장영화제(中國大眾電影百花獎電影節)
 3. 화표장영화제(中國電影華表獎)
- III. 3영화제의 이데올로기 특징
- IV. 나가며

I.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중국 국내영화제에 나타나는 국가이데올로기 구동방식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국가권력과 대중문화가 충돌하고 타협하는 대중문화 현장을 연구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영화제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특정 주제의 영화, 혹은 우수한 영화를 모아서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상영하는 축제를 말한다. 영화제는 다수의 우수한 영화를 선별하고 집중 상영하여 대중들에게 영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화려한 개폐막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대중들이 세계적인 감독과 스타배우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하며, 필름마켓과 프로모션 행사 등 제작지원과 영화판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제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 이 연구는 경성대학교 2014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으며, 2014년 5월 31일 계명대에서 열린 대한중국학회 등 4개 중국학회 춘계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 경성대학교 영화학과 조교수

영화제는 규모와 성격에 따라 국제영화제와 국내영화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제영화제로는 세계 최초의 국제영화제인 이탈리아 베니스국제영화제(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가장 권위 있는 국제영화제로 알려진 프랑스 칸영화제(Cannes Film Festival), 독일 베를린국제영화제(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등이 있는데, 언론에서는 위의 영화제를 전통과 권위라는 면에서 세계 3대 국제영화제로 꼽고 있다.¹⁾ 이에 비해,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미국의 아카데미영화제(Academy Awards, 일명 오스카영화제)는 미국의 국내영화제이다.²⁾ 아카데미영화제는 국내영화제로 분류되지만, 할리우드가 가진 세계적 영향력과 지명도로 인해 세계 최고의 영화제로 자리 잡고 있다.³⁾

영화제는 시상여부에 따라 경쟁부문과 비경쟁부문으로 구분된다. 유럽의 3대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대다수 영화제는 경쟁부문의 시상식을 통해 영화제의 전통과 권위를 부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일부 영화제에는 비경쟁부문으로 영화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산국제영화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영화제의 하이라이트는 영화상 수상에 있다. 영화제는 경쟁부문에서 작품, 감독, 배우, 영화인에 대한 선정과 포상을 통해 최고의 영화를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선정된 영화에 대해 최고의 존경과 찬사를 부여한다. 대중과 언론들은 통상 영화제 마지막 날 진행되는 시상식을 통해 최고의 영화에 찬사와 환호를 보내며, 선정된 영화는 영화적 영예뿐 아니라 이후 영화시장의 배급과 경제수익 면에서도 혜택을

- 1) 베니스영화제는 1932년 시작되어 예술영화제를 지향하며 매년 8월말에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71회를 맞는다. 칸영화제는 1946년에 시작되어 매년 5월에 개최되며 세계 최대의 영화마켓을 열고 있는 영화제로 올해 67회를 맞고 있다. 베를린영화제는 1951년에 시작되어 영화비평가와 감독을 중시하는 전통을 갖고 있으며 매년 2월에 개최되며 올해 64회를 맞는다.
- 2) 미국의 영화민간단체인 영화예술아카데미가 주관하고 있으며 1929년에 시작되어 해마다 2월말에서 3월초에 개최되며 현재 86회를 맞고 있다. 아카데미영화제는 주로 미국에서 상영된 자국 영화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영화제이며, 1957년 제29회 아카데미영화제부터 외국어부문상을 신설했는데, 이탈리아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길>이 처음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 3) 한편, 아시아의 대표적인 영화제로는 1977년 시작되어 올해 38회를 맞는 홍콩국제영화제(Hong Ko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985년 시작되어 올해 27회를 맞는 도쿄국제영화제(Toky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그리고 1996년에 뒤늦게 출발했지만 현재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한 부산국제영화제(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등이 있다.

받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대부분 영화제는 수상을 중시하고 있으며, 영화제의 이름에 ‘대중상영화제’, ‘청룡상영화제’ 등과 같이 영화상의 이름이 붙는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이다.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아카데미 영화제 오스카상 등과 같이 세계 유수한 영화제는 저마다 특유의 이름을 가진 수상 분야와 수상방식을 통해 스스로 영예를 확산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영화제는 영화프로그래머의 우수영화 엄선, 심사위원의 공정성, 영화상 시상, 국제적 학술대회 개최, 영화마켓행사, 그리고 언론과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영화축제이다. 또한, 영화 향유 외에도 영화산업 교류와 초국적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문화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중국의 영화제는 크게 국내영화제와 국제영화제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영화제로는 최대 영화제로 꼽히는 금계백화장(金鷄百花獎)영화제, 중국영화화표장(華表獎)영화제, 주하이(珠海)영화제, 베이징대학생영화제, 청소년공익영화제, 중국영화동우장(銅牛獎), 중국감독협회상영화제, 오일공정상(五個一工程獎)영화제, 화어영화전매대상영화제, 중국독립영화상영화제 등 10여개의 공식적인 영화제가 있으며, 홍콩과 대만에서는 중국홍콩영화금상장(金像獎), 중국홍콩영화평론학회장, 대만영화금마장(金馬獎), 타이베이영화제 등이 있다. 국제영화제로는 창춘국제영화제, 상하이국제영화제, 베이징국제영화제, 국제어린이영화제, 베이징마이크로(微)영화제, 중국심양마이크로영화제, 시안국제민간영상제, 빈하이(濱海)국제마이크로영화제가 있으며, 기타 홍콩국제영화제, 마카오국제영화제 등이 있다.

중국의 영화제는 전 세계의 유수한 영화제와 마찬가지로 우수영화를 선정하고, 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하며, 폐막식에 영화상 수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영화제는 정부와 기업의 재정적 후원 속에 민간부문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통인데 비해, 중국의 영화제는 공산당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연계되어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는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각종 영화제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관장하는 이유는 중국에서 영화가 갖는 독특한 전통과 위상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1949년 사회주의정부 수립 이후 영화를 사회주의체제와 인민을 위한 공공영역으로 정의해 왔으며, 개혁개방 이후 시장화와 개방화를 추진하면서도 영화를 국가이데올로기 영역으

로 인식하고 이를 직접 관장하려는 정치적 전통을 이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에서의 영화에 대한 관념과 전통은 각종 영화제의 운영주체, 심사위원 구성, 영화상 선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즉, 중국의 주요 영화제는 중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일종의 관방 행사이며, 수상작 선정에도 관객보다는 정부의 이데올로기 방향에 부합하는 작품이나 배우가 선정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영화제 수상작의 기준을 예술성, 대중성, 사상성의 삼통(三統)으로 규정하면서도, 정부이데올로기 가치를 담은 주선울영화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독특한 방식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중국의 영화제가 갖는 정부-영화제간의 특수 관계에 착안하여, 영화제 운영주체, 심사위원 구성, 영화상 수상부문과 수상작 등을 조사한 후, 언론보도와 영화인 및 관객들의 영화제 평가를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중국의 영화제에 나타나는 국가이데올로기 구동방식과 특징을 연구하려 한다.

이 글의 연구대상은 중국의 3대 국내영화제로 알려진 '금계장영화제', '대중영화백화장영화제', '화표장영화제'이다. 중국에서는 '금계장'을 영화전문가집단이 선정하는 영화제, '백화장'을 대중들이 투표로 선정하는 영화제, '화표장'을 정부가 포상하는 영화제로 구별하고 있으며, 각각 '예술성', '대중성', '사상성'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중국의 3대 영화제'로 부르고 있다.⁴⁾

'금계장영화제'는 1981년부터 관방영화단체인 중국영화인협회와 중국문련연합(文聯)에서 주관하는 영화제로 올해로 23회를 맞고 있다. '대중영화백화장영화제'는 1962년 시작되었지만, 1964년 중단되었다가, 1980년에 다시 부활하여 올해 34회를 맞고 있다. 백화장은 관객들의 투표로 영화상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가장 대중적인 영화제로 알려져 있다. '중국영화화표장영화제'는 중국정부기관인 중국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직접 주최하는 정부영화제로서, 1957년 시작되었지만 곧바로 중단되었다가 1979년 재개되어 현재 2년에 1번 열리고 있는데, 2013년 15회를 맞았다. 3대 국내영화제 중에서 가장 특기할만한 변화는 '중국영화금계장'과 '대중영화백화장'이 1992년부터 합쳐져서 '중국영화 금계백화장영화제'로 통합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부터는 짝수년도에는 '백화장', 홀수년도에는 '금계장'을 시상하고 있

4) 언론에서는 금계장, 백화장, 화표장을 중국 3대 영화제라 부르며, 중국의 금계장, 홍콩의 금상장, 타이완의 금마장을 흔히 화어(華語) 3대영화제로 부른다.

어, 매년 열리지만 사실상 2년에 1번꼴로 열리는 독특한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중국 3대 국내영화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영화제의 취지, 주최기관의 정치적 정체성, 운영방식, 심사위원 구성, 수상부문과 수상작을 분석함으로써, 영화제에 나타나는 국가이데올로기의 구동방식과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영화제를 둘러싼 국가, 영화, 대중 사이의 갈등, 타협, 저항이 분출되는 대중문화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중국 3대 국내영화제 분석

1. 금계장영화제(中國電影金鷄獎電影節)

원래 금계장영화제는 백화장영화제와 각각 별도로 열리다가, 1992년 금계백화장영화제로 통합되었다. 1992년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의 비준 하에 영화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계장과 대중들이 참여하는 백화장을 합치기로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중국영화금계백화장영화제(中國電影金鷄百花獎電影節)'로 통합하여 운영해왔다. 당시 정부는 영화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금계장'과 대중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백화장'을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금계의 힘찬 울음소리로서 백화제방의 시대를 상징(以〈金鷄啼曉〉象徵〈百花齊放〉)」하는 통합영화제를 지향한다고 발표하였다. 2005년부터 통합영화제로 운영하되, 홀수 년에는 금계장을, 짝수 년에는 백화장을 수상하는 방식으로 매년 열린다. 시상은 2년에 1번씩 번갈아가며 운영하되, 매년 전국 각 지역을 돌면서 순회 개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금계백화장영화제 개최지를 보면, 2009년 제18회는 장시성 난창시(금계장 수상), 2010년 제19회는 장수성 장양시(백화장 수상), 2011년 제20회는 안후이성 허페이시(금계장 수상), 2012년 제21회는 저장성 샤오싱시(백화장 수상), 2013년 제22회는 후베이성 우한시(금계장 수상)에서 개최되었고, 2014년도 제23회는 간수성 란주시에서 개최될 예정(백화장 수상)이다.

먼저, 금계장영화제부터 살펴보면, 금계장영화제는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고 전문성을 중시하는 영화제이다. 1981년 처음 열린 이 영화제는 그해가 음력으로 닭

때 해여서 닭소리를 듣고 힘차게 기운을 받아 약동하라는 의미에서 영화제 명칭을 금계장으로 명명했다고 한다. 금계상 트로피 또한 <사진1>과 같이 울고 있는 금닭을 형상화한 것이다.

금계장영화제는 관방영화기관인 중국영화가협회(中國電影家協會)와 중국문련연합(中國文聯聯合)이 주최하며, 해마다 전국 도시를 순회하며 열리는 전국 규모의 국가급(國家級) 영화제이다. 영화제 기간 동안 우수영화 시상식, 중국과 해외영화상영, 학술토론회, 영화마켓, 국제문화교류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중국 최고의 영화전문가들이 심사위원단에 포진하여 영화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고 전문성을 갖춘 영화제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의 오스카상'라고 불리운다. 2001년부터는 영화제 기간 동안 학술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영화포럼(中國電影論壇)'을 신설하여 중국영화 아젠다와 향후 발전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학술논문 집을 출간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중국 대륙뿐 아니라 양안삼지(홍콩, 타이완) 영화로 수상 범위를 대폭 확장하였다. 현재 이 영화제는 2018년까지 중국영화인협회와 중국문련의 자회사인 중국문련국제미디어주식회사(中國文聯國際傳媒有限公司)가 공동주관하기로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사진1〉 금계장 트로피



〈사진2〉 백화장 트로피



〈사진3〉 화표장 트로피



1) 금계장영화제 운영주최: 중국영화인협회와 중국문련

금계장영화제를 주관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중국영화인협회(中國電影家協會)'와 '중국문련(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中國文學藝術界聯合會)'이다.

중국영화인협회는 1949년에 영화인들이 구성된 단체로서, 1949년 7월 '중화전

국영화예술공작자회의(中華全國電影藝術工作者會議)에서 시작되어, 1957년 '중국영화공작자연의회(中國電影工作者聯誼會)'로 개칭되었다가, 1960년에 '중국영화공작자협회(中國電影工作者協會)'로 바뀌었다가, 1979년 오늘날의 명칭인 '중국영화인협회(中國電影家協會)'로 정착되었다. 영문명은 'China Film Association(CFA)'이며, 중국문련연합(中文聯聯合)의 회원단체이다.

현재 약 6,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대표대회, 이사회, 주석단(主席團)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협회는 민주집중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전국대표대회이다. 전국대표대회에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주석단(주석 1명, 부주석 약간 명)을 구성하고, 주석단에서 비서장과 약간의 부비서장을 선임하여 일상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현재 이사회에는 영화인들 중심으로 16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석단은 상무부주석(常務副主席)이 협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보통 상무부주석이 협회의 공산당 서기직을 겸하고 있다. 현재는 강지엔민(康健民) 상무부주석 겸 공산당 서기가 재임하고 있으며, 영화평론가인 라오슈광(饒曙光)이 사무국장격인 비서장을 맡고 있다.

협회는 5년에 한번 회원대표회의가 소집되며, 회의에서 이사회를 뽑고, 이사회는 주석단과 주석을 선출하고, 주석단이 협회의 서기처를 운영한다. 1949년 7월 제1회 중국영화인회의가 소집되어 중국영화예술공작자협회가 설립되어 양한성(陽翰笙)을 주석으로 선출했으며, 1952년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54년 제2회 대회가 열려 저명 영화감독 차이추성(蔡楚生)을 주석으로 선출했다. 1960년 제3회 대회가 소집되었으나, 1966년 문혁 이후로 활동이 중단되었다. 1979년 11월에 부활하여 제4회 대회가 소집되었고 영화인 샤옴(夏衍)을 주석으로 선출하였으며, 1985년 제5회 대회를 통해 중국영화출판사와 <대중영화> 잡지를 창간하였다. 산하 학회로 세계영화학회, 중국영화평론가협회, 중국영화TV기술학회 등 13개 전문학회를 두고 있으며, 1981년부터는 금계장 심사위원 구성과 선정을 책임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중국영화계 최고 권위의 관방기구이다. 2013년 12월 제9회 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저명 영화배우 리쉬에지엔(李雪健)을 주석으로 새로 선출하고, 상무부주석 겸 공산당서기로 강지엔민을 연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부주석으로는 강지엔민 외에 청룽, 천카이꺼, 평사오강, 인리, 판홍, 장취권 등의 저명 영화감독과 배우, 학자 등 12명이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다.⁵⁾

협회의 산하조직으로는 판공실, 조직연락부, 대외연락부, 인사처, 대형활동부, 이론연구부 등 사무처기구와 중외영화연구소(中外電影研究所), 그리고 잡지출판부문 등 3가지 부문의 조직으로 나뉘어 있다. 잡지출판 부문으로는 1956년 설립되어 중국을 대표하는 영화전문출판사인 중국영화출판사(中國電影出版社), 대표적인 영화 학술잡지인 〈대중영화(大眾電影)〉, 〈영화예술(電影藝術)〉, 〈세계영화(世界電影)〉, 〈중국영화연감(中國電影年鑒)〉, 〈글로벌 스크린(環球銀幕)〉 등을 출간하고 있다.

중국영화인협회의 설립 목표와 역할에 대해서는 장정(章程) 제1조에 「중국영화인협회는 공산당의 주도 하에 전국의 민족영화단체들(타이완, 홍콩, 마카오 포함)로 구성된다.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한 사업을 기본으로 쌍백(雙百, 백화제방과 백가쟁명)의 방침을 따른다. 공산당 및 정부와 영화인들의 단결을 위한 교량 역할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영화인들과의 '연락, 서비스,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영화 발전과 사회주의 선진문화 건설을 추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에는 「삼척근(三貼近, 군중, 실제, 생활에 충실한 문예활동)과 주선율 가치를 확산하고」하며, 제6조에서는 「영화인 정치학습, 전문가 교육, 국내 및 해외영화 상영 활동, 학술토론회, 정기간행물 발간 등의 활동을 지향」하며, 제9조에 「금계장과 백화장영화제를 주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⁵⁾

한편, 금계장영화제의 또 다른 주최기관은 중국문련이다. 중국문련은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中國文學藝術界聯合會)의 약칭으로, 1949년 7월 사회주의정부 수립 직전에 창립되었으며, 중국정치의 한 축인 정협(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의 발기주체이자 단위조직이기도 하다. 문련은 전국 각 성과 직할시에 분회가 설립된 전국조직이며, 중국영화인협회, 중국작가협회, 중국미술가협회 등 문화예술분야의 51개 협회를 총망라하여 회원으로 두고 있다. 금계장을 주관하고 있는 중국영화인협회도 문련의 회원조직이다. 산하조직으로는 주석단 산하에 서기처, 판공청, 국제연락부, 국내연락부, 인사부, 중국문련출판사 등 23개의 산하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중국 최대 규모의 문화예술조직기구이다.

회원대표회의는 5년마다 소집하고 있으며, 1949년 7월 제1회 회의가 소집된 이후, 문혁 기간 동안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79년 부활하였으며, 역대 주석단으로

5) 중국영화인협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cflac.org.cn>

6) 중국영화인협회 장정(章程). <http://www.cflac.org.cn>

는 마오둔, 빠진, 라오셔 등 저명 소설가와 문화인사가 대거 포진하고 있다. 2011년 제9회 대표회의가 소집되어 영화감독 출신이자 영화관료인 짜오스(趙實)를 부주석 겸 공산당 서기로 선출하였다.

문련은 「마르크스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사상, 삼개대표를 기본 노선으로 하며,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일하고,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문예방침을 준수하며, 사회주의정신과 문학사업 발전과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사상성, 예술성, 대중성이 통일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노력하며, 문학예술가들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창립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⁷⁾

금계장의 운영주체로 중국영화인협회와 중국문련이 있지만, 중국문련은 중국 최고정치기구인 정협이 단위조직이며, 중국영화인협회가 중국문련의 회원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문련은 후원단체로 존재하며 중국영화인협회가 실질적으로 금계장 운영의 주체라 할 수 있다. 또한, 두 기관 모두 중국공산당 서기처에서 관리감독하는 사실상의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관방조직이므로, 금계장영화제는 공산당과 정부의 후원과 개입 속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영화제이다. 이러한 조직위원회의 관방적 성격과 구조적 특징이 금계장영화제 수상과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환경요인이 된다.

2) 역대 수상작 분석과 공정성 시비

금계장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영화상 수상의 목적이 「학술, 쟁명(爭鳴), 민주」 세 가지에 있다고 말한다. 심사위원단의 심사기준은 「인적 관계가 아니라, 작품만 본다. 다채로운 면을 보되, 자신의 주관을 분명히 한다. 고정관념에 잡히지 않고, 남의 의견을 잘 수용한다. 충분히 협상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한다」로 명시되어 있다.⁸⁾ 금계장에서 수상 분야는 최우수극영화작품상, 최우수기록영화상, 최우수과학교육영화상, 최우수희곡(戲曲)상, 최우수남자배우상, 최우수여자배우상, 최우수남자조연상, 최우수여자조연상, 최우수감독상, 최우수시나리오상, 최우수촬영상, 최우수미술상, 최우수음악상, 최우수녹음상, 최우수편집상, 최우수특수효과상, 최우수

7) 중국 바이두 사이트 '중국문련' 소개: <http://baike.baidu.com/view/123204.htm?fr=aladdin>

8) 중국 바이두 사이트 '제22회 금계백화장 공식사이트': <http://wh2013.cjn.cn/>

상상, 최우수분장상, 최우수소품상 등 20개 분야이다. 그 외에, 개최 년도에 특별한 필요에 의해 심사위원극영화상, 심사위원시나리오상, 명예상, 종신성취상 등을 추가로 수상하기도 한다.

금계장은 2년에 1번 선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품작이 많은 편이다. 매년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중소형자본영화(800만 위안 이하), 과학교육영화, 기록영화, 희곡영화, 미술 분야 출품작의 신청기간이며, 극영화, 어린이영화는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중국영화인협회 금계장 사무실에 출품하면 된다. 이때, 일반 영화제와 마찬가지로 출품작의 경쟁부문을 분명히 명시하여 신청서로 제출해야 한다. 출품작의 자격은, 매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광전총국 영화국의 심사를 통과하고, 국내외에 상영된 영화에 한하며, 신청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근 금계장은 2009년(제27회), 2011년(제28회), 2013년(제29회)에 열렸는데, 최근 3회 동안의 해당 수상작과 명단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1〉 2009년 제27회 금계장 수상 현황 (*2009년 10월 17일 장시성 난창 개최)

수상분야	이름	수상분야	이름	수상분야	이름
최우수극영화상(*2편)	〈매란방〉 〈집결호〉	최우수희곡상	〈염리우성룡(廉吏于成龍)〉	최우수 시나리오상	장하이양 외 2명: 〈수능1977〉
최우수기록영화상	〈결전 타이위안(決戰太原)〉	최우수중소형극영화상	-	신인감독상	리다웨이: 〈주착초(走着瞧)〉
최우수과학교육영화상	〈달 탐험〉	최우수어린이영화상	〈주로상학(走路上學)〉	최우수 남우주연상	우강: 〈철인〉
최우수미술영화상	〈마란화(馬蘭花)〉	최우수감독상	핀사오강: 〈집결호〉	최우수여우주연상(*2명)	장원리: 〈입춘〉 / 주선: 〈리미의 상상〉
최우수미술상	투어위에린 외 1명: 〈철인〉	최우수녹음상	왕러원 외 2명: 〈8월 1일〉	최우수 남우조연상	왕취에치: 〈매란방〉
최우수촬영상	뤄러: 〈집결호〉	최우수음악상	왕리광: 〈집결호〉	최우수 여우조연상	위예홍: 〈주착초〉
심사위원특	-	심사위원	〈8월 1일〉	종신성취상	친이, 위란

별영화인상		특별상		(*2명)	
최우수디지털 영화상	〈주사방 (走四方)〉	심사위원특별 시나리오상 (*신설)	청샤오링: 〈칭쉐이 이야기〉		

〈표2〉 2011년 제28회 금계장 수상 현황 (*2011년 10월 22일 안휘이성 허페이 개최)

수상분야	이름	수상분야	이름	수상분야	이름
최우수극영 화상	〈비천(飛天)〉	최우수회곡상	〈향구소(響九霄)〉	최우수 시나리오상	〈세세청명 (世世清明)〉
최우수기록 영화상	〈천사(天賜)〉	최우수중소형 극영화상	〈노채(老寨)〉	신인작품상	루양: 〈맹인영화관〉
최우수과학 교육영화상	〈지구온난화〉	최우수 어린이영화상	〈수호동년(守護童年)〉	최우수 남우주연상	순춘(孫淳): 〈추희(秋喜)〉
최우수미술 영화상	〈토협전기 (兔俠傳奇)〉	최우수감독상	천리(陳力): 〈애재낭교(愛在廊橋)〉	최우수 여우주연상	나런화(娜仁花): 〈액길(額吉)〉
최우수미술상	후어팅샤오: 〈당산대지진〉	최우수녹음상	완단지애: 〈건국대업〉	최우수 남우조연상	쉬차이근(徐才根): 〈단원(團圓)〉
최우수촬영상	손밍: 〈추지백 (秋之白華)〉	최우수음악상	왕리광: 〈당산대지진〉	최우수 여우조연상	구어꺼(國歌): 〈경사(驚沙)〉
심사위원특별영화인상	주쭈(朱旭): 〈하늘에서 만나요(我們天上見)〉	심사위원특별 영화상	〈강철파아노 (鋼的琴)〉	중신성취상 (*2명)	푸정의(편집) / 상주안수(녹음)

〈표3〉 2013년 제29회 금계장 수상 현황 (*2013년 우한시 개최)

수상분야	이름	수상분야	이름	수상분야	이름
최우수극영화 상(*2편)	〈중국합화인(中國合伙人)〉 〈쩌우언라이의 4일(周恩來的四個晝夜)〉	최우수회곡상 (*2편)	〈홍루몽〉 〈란매기(蘭梅記)〉	최우수각색 시나리오상 (*신설)	리우전윈: 〈1942〉
최우수기록 영화상	〈빙혈장진호(氷血長津湖)〉	최우수중소형 극영화상	〈만전천심 (萬箭穿心)〉	신인감독상	자오웨이: 〈창춘에게〉
최우수과학교	〈기후변화와〉	최우수	〈我的影子〉	최우수남우	황샤오밍:

육영화상	식량안전	어린이영화상	在奮跑	주연상(2명)	〈중국합화인〉 장귀리: 〈1942〉
최우수미술 영화상	〈극지대 대모험〉	최우수감독상	천커신: 〈중국합화인〉	최우수 여우주연상	송자: 〈蕭紅〉
최우수미술상	장수펑, 치 우웨이밍: 〈일대종사〉	최우수녹음상	우장: 〈1942〉	최우수 남우조연상	왕칭상: 〈일대종사〉
최우수촬영상	뤄러: 〈1942〉	최우수음악상	장샤오둥 〈쩌우언라이의 4일〉	최우수 여우조연상	왕루어단: 〈수색〉
심사위원특별 영화인상 (*신설)	우티엔밍	심사위원특별상	〈1942〉	종신성취상 (*2명)	위민, 리우 쉬에야오
최우수창작 시나리오상 (*신설)	황홍, 왕진밍: 〈경성(傾城)〉	조직위원회상(* 신설)	〈충성과 배반〉		

위의 〈표1, 2,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계장 수상 현황을 주요 수상작이 대부분 정부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주선울 영화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금계장은 최우수극영화상 부문에 매년 2편씩 공동수상하는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제1회 금계장에서는 〈파산야우〉 〈천운산전기〉, 제3회에서는 〈중년이 되어〉 〈루어투어시앙즈〉가, 제7회에서는 〈손중산〉 〈부용진〉을 비롯하여, 제23회에서는 〈경도해랑〉 〈난〉 등 공동수상의 전통이 굳어졌다. 최근 2009년에도 〈집결호〉 〈매란방〉이, 2013년에는 〈중국합화인〉 〈쩌우언라이의 4일〉이 최우수극영화상을 공동수상한 바 있다.

금계장 역대 최대 수상작은 8개상을 받은 〈손중산〉, 6개상을 받은 〈대결전〉 〈파산야우〉 〈야산〉 〈개국대전〉 〈아편전쟁〉, 5개상을 받은 〈1942〉, 4개상을 받은 〈투쳐투어시앙즈〉 〈오래된 우물〉 〈붉은 수수밭〉 〈영웅〉 〈안거〉 〈생사결택〉 〈아름다운 다리〉 〈아름다운 상하이〉 〈집결호〉 〈경도해랑〉 등이 있는데, 최다 부분 수상작 또한 대다수가 주선울영화이다.

역대 최다 연기자상을 받은 배우들 또한 주선울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 대부분 수상했다. 역대 최다 여자연기상 수상은 4번을 받은 판홍(潘虹)으로 최우수여우주연상 3번과 특별상 1번을 받아, ‘금계장의 여인’으로 불리워진다. 역대 최다 수상한

남자 배우는 2번 받은 손페이후, 리바오티엔, 손춘 등이 있는데, 손페이후는 1982년 〈서안사변〉과 1990년 〈개국대전〉과 같은 주선올영화로 상을 받았으며, 손춘 또한 1996년 〈집독영웅〉과 2012년 〈추회〉와 같은 주선올영화로 상을 거머쥐었다.

이밖에, 여자연기자상 2회 수상자로는 송샤오잉(宋曉英)이 1984년 〈16호 병실〉과 1991년 〈충광의 미소〉로, 정자리(鄭嘉梨)는 1987년 〈산속의 여인〉과 〈과년〉으로, 세계적인 배우인 공리는 1993년 〈추국타관사〉와 2000년 〈아름다운 마마〉로, 위예홍은 1986년 〈야산〉과 2009년 〈주착초〉로, 송춘리는 1996년 〈구향〉과 2001년 〈상반영원〉으로, 위엔취안은 1999년 〈봄의 광상〉과 2003년 〈아름다운 다리〉로, 쉬징레이는 2003년 〈나의 아름다운 향수〉와 2003년 〈나와 아버지〉로 각각 2번씩 받았는데, 이들이 출연한 영화 다수가 주선올 영화이다.

역대 최다 감독상은 8번을 받은 장이모우 감독이다. 장이모우는 최우수감독상 3번, 최우수작품상 3번, 촬영상 1번, 남우주연상 1번 등을 수상했다. 역대 최다 시나리오상 수상자는 2번 받은 왕싱둥(王興東)으로 1993년 〈장범영〉과 1997년 〈레이핑을 떠나며〉와 같은 주선올영화 전문 시나리오작가이며, 2번 받은 수샤오웨이(蘇小衛)는 여성으로 2002년 〈생활수〉와 2003년 〈난〉으로 상을 받았다. 역대 최다 촬영상 수상자는 4번을 받은 허우잉(侯咏)으로 1987년 〈손중산〉, 1989년 〈만종〉, 1997년 〈아편전쟁〉, 2000년 〈집으로 가는 길〉 등 주선올 경향의 영화를 주로 촬영했다. 최고령 여성 수상자는 진야친(金雅琴)으로 81살 때인 2005년에 〈우리 두 사람〉으로 상을 받았다. 한편, 최초의 홍콩인 수상자는 세계적인 스타 청룡으로 2005년 〈신경찰스토리〉의 감독상을 받았으며, 이후 천커신 감독이 홍콩인으로서는 최초로 2013년 〈중국합화인〉으로 감독상을 받았다.

최근 3회 금계장 수상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계장 선정은 영화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예술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국가이데올로기를 담은 주선올 영화가 영화상 수상에 선정되는 사례가 많아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기도 한다.

특히, 2011년도와 2013년도 금계백화영화제에서는 박스오피스 최고 흥행작이자 평단의 호평을 받은 2011년 장원 감독의 〈양자탄비〉, 2012년 〈태경(泰閏)〉 등이 아예 후보작 명단에도 오르지 못했고, 그 대신 〈비천〉 〈추회〉 〈세세청명〉 등 일반인들에게 낯선 주선올 영화가 대거 수상하자, 조직위원회가 주선올 중심의 편중된

포상을 진행했다는 공정성 시비가 일어났다.⁹⁾ 또한, 2013년 9월 28일 폐막식에서 금계장 최우수작품상은 〈중국합화인〉 〈짜우언라이의 4일〉로 단독수상이 아닌 공동수상(雙黃蛋)을 하면서, 주최측이 상을 안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¹⁰⁾

2011년 10월 충청상보는 〈올해 금계장 수상작들은 잘 모르는 영화들이 받았다. 최우수극영화상인 〈비천〉, 최우수시나리오상인 〈세세청명〉, 최우수감독상인 〈애재랑교〉, 신인감독상인 〈맹인영화관〉 등은 상영되지 않았거나, 영화관에서 곧바로 상영이 끝난 영화들이다. 금계장이 아니라 썰렁한 금냉장고(金水箱)영화제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첫째, 〈추희〉는 영화관 상영 기간이 23일에 불과했고 흥행 수익은 511만위엔에 그쳤다. 〈세세청명〉과 〈애재랑교〉는 아예 상영조차 되지 않은 영화들이다. 반면에, 흥행과 평단의 주목을 받았던 〈양자탄비〉 〈비성물요2〉 〈조씨고아〉는 금계장 후보로 거론되지도 않았다. 둘째, 금계장이 원래의 취지인 학술영화상이 아니라 점점 정부포상을 닮아 간다. 근본적인 병폐는 독립성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심사위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강철 피아노〉의 남자주인공은 제23회 동경영화제에서 최우수남자연기상을 수상했고, 귀푸칭과 주쉬는 〈최애〉 〈천국에서 만나자〉 등에서 열연하여 호평을 받은 배우들이다. 그런데도, 최우수연기상은 〈추희〉의 손춘에게 돌아갔다. 더욱 황당한 것은 〈맹인영화관〉으로 루양 감독이 신인감독상을 받은 것이다. 〈강철 피아노〉 감독에게는 보상차원에서 특별상을 준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¹¹⁾

9) 「2013년도 영화제에는 219편이 참여했다. 그런데, 2011년 박스오피스 최고인 〈양자탄비〉와 2012년 흥행 최고인 〈태경(泰囧)〉가 상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영화제에 참가하지 않아서이다. 이에 대해, 조직위원회측은, 「어떤 영화가 참여하고 안하고는 우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화의 전문성이지 박스오피스 흥행성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조직위원회 공산당 서기인 캉지엔민은, 「금계백화영화제는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태경〉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계장 시상 후보자격이 없다. 또한, 금계장은 학술적인 영화제이며, 일정한 수준을 요구한다. 박스오피스 흥행 기록보다는 전문성과 민족영화 등의 기준을 준수한다」고 인터뷰를 가졌다. 하지만, 영화는 대중에 가장 밀접한 예술이다. 대중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공정성과 권위는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第22屆金鷄百花電影節述評〉, 《中國網》, 2013. 9. 30.

10) 〈金鷄百花電影節最佳故事片獎下“雙黃蛋”〉, 《中國網》, 2013. 9. 28.

11) 이에 대해, 금계장 조직위원회 중국영화인협회 서기인 캉지엔민은, 「금계장은 영화시장

2011년 제28회 금계장 시상식의 총감독을 맡았던 청칭송(程青松)은, 「영화황제 상이라할 수 있는 최우수남자연기상은 주쉬에게 돌아갔어야 했다. 아니면, 홍콩의 귀푸칭이나 〈강철 피아노〉의 왕취엔위엔에게 돌아갔어야 했다. 최종적으로 〈추희〉의 손춘에게 돌아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최우수작품상을 〈비천〉이 받은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금계장은 정부영화상인 화표장이 아니다. 최우수감독상 또한 천리에게 준 것은 공신력이 떨어지는 일이다」고 비판하였다.¹²⁾

금계장영화제는 수상의 공정성뿐 아니라, 행사의 운영과 대중들과의 소통 면에서도 여론의 비판을 받고 했다. 2013년도 우한에서 열린 금계백화영화제는 “근검절약 영화제”를 표방하면서, 개막식 행사비용을 90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무선, 무성, 무사(無線, 無星, 無事) 영화제로 전략했다」고 일부 언론의 혹평을 받았다.¹³⁾ 또한, 2년에 1번 열리는 운영방식과 개최시기가 10월에서 9월로 자주 이동하는 유동성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판이 일었다.¹⁴⁾

이와 같이, 최근 3회 동안의 금계장 수상작을 보면, 영화전문가들의 전문성에 기준한 최고 권위의 영화제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화상 수상의 공정성

과 관중을 고려하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이 주선율이나? 내 생각엔 중국영화 전부가 주선율영화이다. 전부 국민들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강변했지만, 여전히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金鷄獎冷成了“金水箱”〉, 《重慶商報》, 2011. 10. 25.

- 12) 언론보도에서도 다수의 관중들은 〈추희(秋喜)〉 〈비천(飛天)〉 등 수상작을 잘 알지 못하고, 박스오피스 흥행에서도 참담한 성과를 올린 작품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청칭송은 선정과정에 대해서 「전혀 영화전문가나 학술적 태도가 아니다. 이러한 원인은 심사위원단이 너무 늙었고 시대에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퇴임한 선생들이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고, 심미안이 올드하다. 중국영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고 비판하였다. 〈程青松批金鷄獎不專業:評委老化跟不上時代〉, 《揚子晚報》, 2011. 10. 24.
- 13) 「조직위원회 강지엔민 서기는, 「영화제 비용을 절감한다고 해서 영화제 수준은 저하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다양한 국제영화제에서 이러한 방법을 진행하고 있다. 영화제를 영화 본질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고 공언했지만, 스타배우들을 초청하지 않고, 개막식 공연도 줄인 것은 「영화는 있되, 영화제는 없는 격이다. 차라리 화표장영화제와 같이 내부적으로 거행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2013金鷄百花電影節瘦身述變「宿骨鷄」〉, 《新快報》, 2013. 9. 26.
- 14) 「2년에 1번 있는 영화제는 분명 문제 있다. 2013년 제22회 금계백화영화제인데도 제 29회 금계장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많은 대중들음 무슨 의미인지를 묻는다. 개최시기도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10월, 9월, 11월 일정하지 않다. 〈金鷄百花電影節亟待改變〉, 《揚子晚報》, 2013. 9. 26. 22. 〈第22屆金鷄百花電影節開幕:〈泰匪〉未提名〉, 《北方新報》, 2013. 9. 26.

과 투명성, 그리고 운영의 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2. 대중영화백화장영화제(中國大衆電影百花獎電影節)

백화장영화제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이다. 백화장은 1961년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소집한 '전국문예공작자좌담회'와 문화부가 소집한 '전국극영화창작회의'에서 당시 총리였던 쉰우언라이(周恩來)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쉰우언라이 총리는 좌경화 되어있는 문예창작의 흐름을 비판하면서, '이야기, 연기, 카메라 기술, 음악'이 우수한 영화를 장려하는 '사호(四好)원칙'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세의 흐름 속에 1961년 중국영화인협회 서기인 황강이 '대중영화백화장'이라는 영화제를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62년 제1회 백화장은 당시 12만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백화장을 주관한 <대중영화(大衆電影)> 잡지도 960만권이나 발간되었다. 1963년 제2회 영화제를 마친 후 17년간 중단되었다가 1980년 다시 시작되어 제3회가 열렸다. 백화장(百花獎)이라는 명칭은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이라는 쌍백의 문예방침에서 유래되었다. 트로피는 <사진2>와 같이 금꽃을 든 여신상을 조형했으며, 「영화는 중국 문예의 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까지 시상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화여신상은 저명조각가인 야오융강(姚永康)이 디자인한 것이다.

백화장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들의 투표로 영화상을 선정하는데 있다. 영화상 선정을 대중들이 결정한다는 뜻에서 '군중상'으로도 불리워진다. 금계장이 영화예술인들이 선정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상이라면, 백화장은 대중들이 뽑는 가장 대중적인 영화상이라 비교할 수 있다.

백화장영화제의 운영주최(조직위원회)는 금계장영화제와 같은 중국영화인협회와 중국문련이다. 이미 앞장에서 이들 운영주최에 대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의 관방적 정체성으로 인해 백화장영화제 또한 금계장영화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입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1) 심사위원과 심사기준

개혁개방 이후 1980년 제3회 백화장영화제로 부활한 이후, 백화장영화제는 최우

수작품상, 우수작품상, 최우수감독상, 최우수남우주연상, 최우수여우주연상, 최우수 남우조연상, 최우수여우조연상, 최우수신인상, 종신성취상 등 9개 분야에 대해 영화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2010년 백화장영화제 영화기간 동안 시나리오상이 없는 것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2012년부터 최우수시나리오상을 추가로 신설하게 되었다.¹⁵⁾

백화장은 관객들이 투표로 영화상을 뽑는 중국에서 보기 드문 가장 대중적인 영화상이다. 하지만, 대중들의 투표가 반영되는 방식과 각 단계별 선정과정에서 일정한 관방의 여과장치가 존재하고 있어 100% 대중들에 의한 선정이라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

먼저, 백화장 심사위원단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심사위원단은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구성한다. 심사위원단은 중국문련, 중국영화인협회, 중국영화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단 구성에서 후보작 영화와 관련있는 인물들은 제외하는 엄격한 회피제도가 적용된다. 특히, 백화장에 출품한 영화인들은 조직위원회와 기타 백화장영화제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백화장 수상작 선정은 일반적으로 3단계를 거친다. 먼저, 1단계로 중국배급상영화협회 소속의 100여명의 영화관 경영진들을 통해, 심사 해당 기간인 2년 이내, 박스오피스 500만 위안 이상의 흥행을 기록한 영화이거나 혹은 텔레비전에서 3000만 명 이상 시청한 영화들 중에서 각 10편의 후보작을 예비 선정한다. 그 다음, 2단계로는 10편의 후보작을 대상으로 해당년도 8월 31일까지 관중투표를 실시하고, 조직위원회에서 통계를 집계한 다음, 대중영화백화장 수상부문에 대해 5편을 노미네이트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조직위원회 주관 아래, 관중투표자들 중에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101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매년 10월 중

15) 2010년 백화장영화제 기간 동안 중국문학학회회장인 왕싱둥(王興東)은 인터넷에 「백화장에 시나리오상을 제외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고, 백화장 조직위원회에 대해, 「원래 백화장 초창기에는 시나리오상이 있었는데, 지금 없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인터뷰를 하였다. 언론의 비판 속에, 2012년 백화장영화제부터는 시나리오상을 개설했다. 〈編劇要爭百花獎, 那別的行當呢?〉, 《深圳商報》, 2010. 10. 12. 백화장영화제 조직위원회를 대표해서 강지엔민 서기는, 「사실 시나리오상은 전문가가 심사해야 하는 영역이다. 최근에 계속 조사해 보니, 젊은 관중들이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따라서 우리는 백화장 심사위원단을 신뢰하며 이 상을 만들었다」라고 인터뷰하고 있다. 〈金鷄百花獎電影節恢復最佳編劇獎〉, 《北京晚報》, 2012. 9. 27.

순 101명의 관중심사위원단은 각 부문별 후보작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영화제 수상식에 전달한다.

특히, 최종단계인 3단계 관중심사위원단 101명의 선정과 구성은 영화상 선정의 공정성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중심사위원단 구성을 위한 엄격한 4가지 전제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101명은 투표한 관중 중에서 선정한다. 둘째,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 청소년학생, 기업인 등 직업별 대표 비례에 의해 선정한다. 셋째, 101명의 관중심사위원단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어야 한다. 넷째, 관중심사위원단은 조직위원회를 통해 공시되어야 하고, 만약 부적합자이거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제외시킨 후, 다른 투표한 관중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백화장은 관중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심사기준은 대중인기라고 말할 수 있으나, 관중투표 이후 최종심사위원단 101명의 의결로 결정되는 간접의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백화장 수상 때마다 공정성과 민주성에 대한 시비가 일기도 한다.

2) 역대 수상작 분석과 공정성 제기

백화장 영화상은 1979년 제3회로 부활한 이래 매년 열렸다가, 2005년 금계백화상영화제와 통합된 이후에는 2년마다 1번씩 열리고 있다.¹⁶⁾ 최근 3차례 시상된 수상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16) 역대 백화장의 최우수작품상 내역을 보면, 1961년 제1회 최우수작품상은 <홍색낭자군>, 제2회는 <이쌍쌍>이 수상했다. 개혁개방 이후 1979년 제3회로 부활한 이래 2002년까지 최우수작품상에는 1편이 아닌 3편이 공동수상하는 전통을 유지해왔다. 1979년 제3회에는 <길홍창> <소화>, 1980년에는 <노산련> <천운산전기> <칠품지마관>, 1981년에는 <회양문> <향정> <백사진>, 2000년에는 <충격아마존> <영웅> <덩샤오핑> 등이 공동수상했다. 2003년 최우수작품상에 <휴대폰>을 선정한 이래, 2004-2005년 <장사덕> 등 최우수작품상은 1편으로 정착되었다.

〈표4〉 2008년(제29회, 장소: 랴오닝성 따론편), 2010년(제30회, 장소: 장수성 장양), 2012년(제31회, 장소: 저장 샤오싱 개최) 백화장 수상 현황

	2008년	2010년	2012년
수상분야	명단	명단	명단
최우수작품상	〈집결호〉	〈건국대업〉	〈당산대지진〉
우수작품상	〈운수요(雲水謠)〉 〈隱形的翅膀〉	〈화무란(花木蘭)〉 〈경천동지(驚天動地)〉	〈신해혁명〉 〈실연 33일〉
최우수감독상	평사오강: 〈집결호〉	평사오강: 〈비성물요(非誠勿擾)〉	평사오강: 〈당산대지진〉
최우수 남우주연상	장한이: 〈집결호〉	천쿤: 〈화피〉	원장: 〈실연 33일〉
최우수 여우주연상	리빙빙: 〈운수요〉	짜오웨이: 〈화무란〉	바이바이허: 〈실연 33일〉
최우수 남우조연상	덩차오: 〈집결호〉	소유핑: 〈풍성〉	손춘: 〈신해혁명〉
최우수 여우조연상	귀야퇴이: 〈운수요〉	왕자: 〈경천동지〉 / 쉬칭: 〈건국대업〉	닝징: 〈신해혁명〉
최우수신인상	퇴이칭야오: 〈隱形的翅膀〉	쉬지엔: 〈경천동지〉	장즈핑: 〈당산대지진〉
종신성취상	위앤나이첸, 천창, 장지엔	위양, 티엔화	왕웨이이, 옌지쩌우
최우수 시나리오상	-	-	수샤오웨이: 〈당산대지진〉

백화장이 관객상을 표방하면서, 다른 영화제에 비해 정부이데올로기를 표출하는 주선올 영화에 대한 수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주요 수상명단을 보면 여전히 주선올영화이거나 혹은 주선올 주제의식을 가진 블록버스터 상업영화(大片)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최다 백화장 수상작으로는 4개상을 받은 〈홍색낭자군〉 〈리칭황〉 〈소화〉 〈고산의 화배〉 〈부용진〉 〈집결호〉 〈당산대지진〉 등 일곱 작품이다. 3개상을 받은 작품은 〈일출〉 〈오래된 우물〉 〈개국대전〉 〈과년〉 〈혼재북경〉 〈갑방을방〉 〈대완〉 〈휴대폰〉 〈장사덕〉 〈운수요〉 〈경천동지〉 〈신해혁명〉 등이 있는데, 최다 수상 부문의 절대다수가 주선올영화이다. 최다 배우상 수상자는 여배우 리우샤오칭으로 1980년

〈부용진〉으로 주연상을 받은 이래 5번을 수상했으며, 남자배우는 거요유로 〈갑방을 방〉 이후 4번 수상했다. 역대 최다 백화장을 받은 영화감독은 평사오강이다. 그는 최우수감독상 3번, 최우수작품상 3번 등 총 8번의 상을 받았으며, 그 뒤로 장이모 우 감독이 총 6번을 수상했다. 연기자 부문 최다 수상자는 〈목마인〉에서 주연을 맡은 니우펀으로 3회를 수상했으며, 왕지리, 뤼리핑이 2회 수상한 바 있다.

최근 3회 6년 동안 최다 수상자 부문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평사오강 감독이 최우수감독상과 최우수작품상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관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평사오강 감독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백화장 최초로 상을 받은 타이완인은 〈천하무적〉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리우뤄잉이며, 최초로 상을 받은 홍콩인은 위엔치우, 세팅핑이다. 연령별로 볼 때, 바링허우(80後) 세대 최초로는 1981년생 판빙빙이 2004년 〈휴대폰〉으로 수상한 바 있으며, 최연소 여우주연상은 천충과 귀커위로 18세, 최연소 연기자상은 10살인 장옌과 장즈핑이 받았고, 최고령 여성연기자는 64살의 짜오리퉁, 남성연기자는 71살의 주쉬이다.

최우수작품상 면면을 보면, 2008년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집결호〉는 주선울 경향의 상업 대작이며, 우수작품상을 받은 〈운수요〉, 〈숨겨진 날개〉는 대중화를 지향하는 주선울 영화라 할 수 있다. 2010년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건국대업〉과 우수작품상 〈경천동지〉는 전형적인 주선울 영화이며, 우수작품상 〈화무란〉은 애국주의를 표방하는 주선울 이데올로기를 가진 상업 대작이다. 2012년 최우수작품상 〈당산대지진〉은 휴머니즘과 사회단결을 강조하는 주선울 경향의 상업대작이며, 우수작품상 〈신해혁명〉은 전형적인 주선울영화이다. 연기자상 분야를 봐도, 대중들의 인기투표임에도 불구하고 〈표4〉에서와 같이 스타 배우와 주선울영화 출연 배우가 5:5 정도의 비율로 균형적으로 수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젊은 관객층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청춘영화 〈실연 33일〉이 우수작품상과 연기자상에 선정된 것이 오히려 이례적으로 보일 정도이다.

관객투표를 중시하는 백화장에서 공정성 시비 또한 지속되고 있다. 기존 선정작 중에서 영화시장 박스오피스 흥행순위 작품과 수상작이 일정한 괴리감을 보이는 것 또한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요소이다. 또한, 관객투표로 올라온 후보작에 대해 심사의 마지막단계인 101인의 심사위원단에서 어떻게 논의

하고 결정하는지, 과연 101명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2010년 백화장영화제 수상 때 공정성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가장 심했다. 최우수작품상을 주선올영화인 〈건국대업〉이 차지했고, 우수영화 2편에는 〈화무란〉과 〈경천동지〉가 차지했는데, 일부 언론과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의외의 결과라는 평가가 많았다. 홍콩 배우 런다화는 「상을 받은 영화는 물론 우수한 영화를 대표하겠지만, 상을 받지 못한 영화가 우수하지 않은 영화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고 농담조로 말했다. 또한 홍콩 감독 우스위엔은, 「영화제에 모든 사람이 오기를 원한다면, 공평, 공정, 공개해야 하며, 어떤 의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¹⁷⁾

101인의 최종심사위원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이 뒤따랐다. 2010년에는 투표에 참가한 관중 중 130명을 조직위원회 심사단이 검증하여 76명을 우선 선정하였고, 나머지 25명은 개최지인 장양시(江陽) 관객 중에서 선정했다. 2010년도 최종 심사위원단의 3가지 특징은 첫째, 평균 연령 26.6세로 지난 번 심사단보다 7.1세 낮아졌고, 둘째, 언론인, 공무원, 기자, 군인 등 직업군이 다양해졌으며,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심사위원이 87명이었다, 셋째,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남성은 39명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101명의 관중 심사위원이 과연 대중들을 대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비판하고 있다.¹⁸⁾ 또한, 다른 언론에서도, 「최종심사단에 개최지 심사위원의 비율을 넣은 것은 백화장의 묘미를 변하게 했다」고 비판하면서, 「101명 최종 심사위원단을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 청소년학생, 상업계 대표를 일정한 비율로 안배했다고 하지만, 개최지 쿼터로 25명을 가져간 것은 지나치게 많다. 심사위원 구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⁹⁾ 또다른 언론도 「조직위원회 캉지엔민 서기는 억지로 공동수상하는 쌍황단(雙黃蛋)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올해에도

17) 2010년에는 589만 명이 백화장 투표에 참가했는데, 그 중 262만여명은 인터넷투표로, 326만여 명은 종이 투표용지로 참여하여, 이전에 비해 116% 증가했다. 백화장 조직위원회 서기 캉지엔민은, 「투표자 중에서 마지막 관중심사위원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진 것이다」라고 말한다. 〈百花獎的雙黃蛋“挺有味兒”〉, 《南方都市報》, 2010. 10. 19.

18) 〈評論：“百花獎”101名觀衆評委能否代表大眾?〉, 《沈陽日報》, 2010. 10. 17.

19) 〈評委過度大眾化本地化讓百花獎變味兒〉, 《新浪娛樂》, 2010. 10. 12.

최우수조연상에는 결국 왕자(〈경천동지〉)와 쉬칭(〈건국대업〉) 2명의 공동수상자가 나왔다. 101명의 최종심사단의 투표는 공신력이 없다, 어떻게 완전히 믿을 수 있는가?」²⁰⁾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비록 101명이 선정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떤 영화가 수상할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날 어떤 스타배우가 출석할 것인지 미리 알려주기 때문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시중에 돌았고²¹⁾, 시상식에 나온 평사오강 감독은 농담조로, 「백화장 수상하는 것은 하나의 게임놀이에 불과하다」고 풍자하기도 했다.²²⁾ 이러한, 백화장 수상에 대한 비판에 대해, 조직위원회 캉지엔민 서기는, 「관객들과 언론은 금계백화영화제에 대해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대응하고 있다.²³⁾

2014년도 백화장영화제는 2014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간쑤성 란저우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화제 조직위원회측은, 「지난번 백화장은 9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올해는 천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영화배급상영협회 100명의 추천에 의해 이미 〈일대중사〉 〈로스트 인 타이랜드〉 〈중국합화인〉 〈청춘에게〉 등의 10편이 후보작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란저우시는 2014년 금계백화영화제를 「정부 주도, 시장시스템, 사회참여, 근검절약 영화제(政府主導, 市場運作, 社會參與, 節儉辦節)」라는 원칙 속에 준비하고 있다는 기자회견담회를 열었다.²⁴⁾

이와 같이, 최근 3회 동안의 백화장 수상작을 보면, 대중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영화상임에도 불구하고, 당대 중국 영화시장 박스오피스 흥행 순위와 일치되지 않으며, 영화작품의 성격도 대체로 인기영화 외에 주선율 영화가 수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최종심사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있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중국영화화표장(中國電影華表獎)

중국영화화표장은 정부가 포상하는 영화제이다. 영화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인 ‘국

20) 〈評論:中國只有101個電影觀眾?〉, 《深圳商報》, 2010. 10. 18.

21) 〈金鷄百花, 想說愛你不容易〉, 《京華時報》, 2010. 10. 17.

22) 〈評論:遙望釜山, 金鷄百花差在哪里?〉, 《遼沈晚報》, 2010. 10. 18.

23) 〈金鷄百花: 需要觀眾多一點耐心〉, 《中國文化報》, 2012. 10. 11.

24) 〈第23屆金鷄百花電影節9月上約蘭州〉, 《每日甘肅省》, 2014. 6. 9.

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1992년 창립되어 정부가 직접 영화에 대해 포상하는 가장 정치적 권위가 있는 영화상이다. 화표장의 전신(前身)은 1957년 만들어진 문화부우수영화상이다. 제정 직후 22년간 중단되었다가 1979년 부활되었고, 1985년 문화부 영화국이 광과전영전시부로 바뀌면서 '광전부 우수영화상'으로 개명되었다가, 1994년 중국전영화표장으로 다시 개명되었다. 1994년 제1회 화표장에서 최우수작품상으로 <피고산강야>가 수상한 이래, 해마다 열리다가, 2005년 이후부터는 2년에 1번 열리고 있다. 2009년부터는 우수해외화교연기자상, 우수 해외화교감독상을 신설하여 홍콩과 마카오영화 등으로 수상범위를 넓혔다.

화표장 트로피는 1994년에 제정되었으며, <사진3>과 같이 티엔안먼 성루의 돌기둥(화표)을 조형화한 것이다.²⁵⁾

1) 운영주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영화정책과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2013년 <국무원기구개혁과 직능변환 방안>에 따라, 신문출판총서와 국가광전총국이 합쳐져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 The State Administration of Press, Publication, Radio, Film and Television of China)'으로 개명되었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뉴스,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의 사업발전을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며, 저작권 관리를 책임진다.

본래 영화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1949년 '중국광과사업관리처'로 출발하였고, 1952년 '중앙광과사업국'으로 바뀌었다가, 1986년 '광과전시부'와 '문화부영화국'이 합병되어 '국가광전총부'로 승격되었다가, 1998년 '국가광전총국'으로 바뀌었고, 2013년 3월부터 국무원 기구개혁 방침에 따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으로 개편된 것이다. 2013년 부서를 개편한 이유는 국가신문출판서의 업무가 저작권, 뉴스보도, 출판 등을 관장하는 일인데, 그것이 국가광전총국의 업무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

25) 티엔안먼 광장에는 백옥으로 만든 한쌍의 돌기둥 화표가 있다. 이 화표는 명나라 영락제에 건립된 것으로 500년이 넘는 유물이다. 화표 간의 거리는 96미터이며, 불교식 불상받침대(須彌座) 위에 쟁반형 모형을 조성하였으며, 높이 9.57미터, 무게 200톤으로, 화표의 외면에는 용과 구름을 조각한 후, 윗부분에 좌우로 긴 돌이 꽂혀 있어, 마치 구름 사이에 돌기둥이 걸려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화표이다. 화표장 트로피는 이를 본따 형상화한 것이다.

어왔기 때문이다. 원래 중국정부는 업무의 키워드인 '신문', '출판', '광전'의 용어를 살려, '국가신문출판광전영전시총국'으로 명명하려 했으나, 정부기관의 명칭으로는 지나치게 길고 또 그 동안 입에 익은 명칭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최종적으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으로 명명하게 되었다.²⁶⁾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홈페이지를 보면, 주요업무는 1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신문,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부문의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책임진다. 또한, 사업의 비전을 제시하며 법규 제정, 정책 제시, 관리감독을 추진한다. 이밖에, 저작권을 관리감독하며, 중앙인민방송국, 중국국제방송국, 국영중앙방송영화채널(CC-TV6)을 운영한다. 현재 대다수 언론에서는 두 기관의 합병이 문화산업 융합 발전, 공공문화서비스 발전, 문화시장 발전, 해외수출과 세계진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개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3년도에 개편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산하에 22개 기구를 두고 있다. 중요한 기구를 소개하면, 먼저 '판공청'은 총국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다. '정책법제사(政策法制司)'는 각종 정책과 법규를 관장한다. '규획발전사'는 산업발전과 기구개혁을 맡는다. '전영국'은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 등의 과정을 총괄 관리하고, 국제합작과 심사제도를 담당하며, '판권관리사'는 저작권을 담당한다. 기타, 공공복무사, 종합업무사, 선전사, 신문보간사(新聞報刊), 출판관리사, 드라마사, 인쇄사, 미디어기구관리사, 디지털출판사, 인터넷관리사, 위법출판물관리사, 수출관리사, 과학기술사, 재무사, 국제합작사(홍콩 및 마카오), 인사사, 보위사 등의 산하기구가 있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직원은 현재 총 508명이며, 국장 1명, 부국장 4명, 부국장급 1명, 산하기관간부 77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3월 19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국가광전총국 국장이던 차이푸차오(蔡赴朝)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장에 임명했으며, 이전 국가신문출판총서 서장이었던 장지엔궈(蔣建國)를 당서기로 임명하였고, 부국장으로는 동강(童剛) 등 7명을 선임했다. 차이푸차오 국장은 취임식에서, 「신문, 출판, 광전 부문은 강한 이데올로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공산당의 결정에 감사하며, 정치, 사상, 행동에서 공산당 중앙과 일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중국 당-

26)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홈페이지는 신문출판 부문과 광전총국 부분 2개로 나뉘어져 있다. 홈페이지 참조. <http://www.sarft.gov.cn/>

국가(party-state)체제의 특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행정사례라 할 수 있다.

2) 심사과정과 심사기준

화표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자격조건이 있다. 첫째, 극영화(합작영화 포함), 디지털영화, 희곡영화 등은 매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영화관에 상영된 작품에 한하며, 이전에 화표장에 출품하지 않은 영화로 제한한다. 단, 어린이영화, 과학교육영화, 애니메이션, 기록영화, 더빙영화 등은 상영되지 않은 영화라도 출품할 수 있다. 둘째, 우수어린이영화, 우수 어린이 연기자 부문은 어린이영화 부문에 출품해야 한다, 셋째, 우수 신인상의 자격은 시나리오 부문은 40세 이하, 감독은 35세 이하, 연기자는 30세 이하여야 하며, 출품 전에 중요한 영화상을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한다. 넷째, 극영화, 디지털영화, 희곡영화 등은 6월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화표장 심사는 사상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박스오피스와 투자자본은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록 화표장을 수상했다라도 투자자본을 회수하지 못한 영화가 빈번하게 출현하여 항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2005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광전총국에서는 화표장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국영화화표장심사관련규정(中國電影華表獎評選章程)>을 공포하여 참가자격에 대한 몇 가지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첫째, <영화방영허가증(電影片公映許可證)>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방영된 영화에 대해서만 출품할 수 있게끔 했다. 둘째, 영화의 총자본과 영화시장 수입(부가가치시장 수익 포함)이 1:1 균형을 이루는 영화, 셋째, 박스오피스 수익이 500만 위안에 도달해야 하며, 넷째, 텔레비전 영화채널(CC-TV6)이나 기타 영화채널에서 시청자수가 2,200만 명 이상이고, 국내외 수익이 300만 위안에 도달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후보작이 될 수 있다.

현재 화표장의 심사위원은 37명 전후의 영화평론가와 학자로 구성되며, 15일 동안 심사를 진행하며, 화표장 수상 장려금은 100만 위안이다. 2011년 제14회 화표장 심사과정을 보면, 37명의 심사위원이 1000여 편의 영화를 심사하여, 표결을 통해 수상작을 결정하였는데, 최우수작품상의 경우 10편이 선정되어 선정율 3.96%를 보이고 있다.

화표장 심사기준은 삼첩근(실제, 생활, 군중)의 원칙과 '예술성, 사상성, 대중성'의 삼성(三性)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회 수상 내역을 보면 이러한 주선올영화 우위의 평가 외에, 대중들과 같이 나누고(分享), 상업영화와 균형을 잡는(平衡)의 원칙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참가자격 개혁 조치 이후, 영화계 출판작의 참가자격이 엄격해지고, 영화시장의 수익을 중시하게 됨으로써,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영화가 화표장 수상에 주목받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사상성'을 기준으로 주는 영화상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주선올영화가 차지하거나 주선올성향의 대작 상업영화가 차지하고 있다.

3) 수상작품 분석

화표장 수상 분야는, 우수더빙(譯制), 우수극영화상, 우수감독상, 우수시나리오상, 우수남자연기자상, 우수여자연기자상, 우수디지털영화상, 우수어린이영화상, 우수희곡(戲曲)영화상, 우수합작영화상, 우수과학교육영화상, 우수애니메이션상, 우수기록영화상, 우수영화기술상, 우수어린이남자연기자상, 우수어린이여자연기자상, 우수신인감독상, 우수신인시나리오상, 우수신인남자연기자상, 우수신인여자연기자상, 우수영화음악상 등이 있으며, 2009년부터는 우수해외화교감독상, 우수화교남자연기자상, 우수화교여자연기자상 등을 신설하여, 현재 총 24개 부문에 대해 수상하고 있다.

2013년 제15회 화표장부터는 '우수어린이남자연기자상', '우수어린이여자연기자상', '우수디지털영화상'을 없애고, 대신 '우수영화촬영상', '우수농촌소재영화상', '우수소수민족소재영화상', '우수청년영화창작상'을 신설함으로써, 총 25개 부문으로 수 정보강했다. 정부가 포상하는 영화상인 만큼 일반 영화제보다는 수상 부문이 많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화표장 수상작품과 수상자의 현황을 보면 아래 <표 5>, <표 6>, <표 7>과 같다.

〈표5〉 2009년 제13회 화표장: 2007-2008년. (장소: 베이징 국제박람회장)

수상부문	명단	수상부문	명단
우수극영화상 (10편)	〈돌발사건(突發事件)〉 〈철인〉 〈육자매〉 〈수능 1977〉 〈집결호〉 〈매란방〉 〈대하〉 〈나의 왼팔〉 〈8월 1일〉 〈원용평(袁隆平)〉	우수해외 화교감독상	오우삼: 〈적벽〉
우수감독상 (2명)	평사오강: 〈집결호〉, 천카이겨: 〈매란방〉	우수해외화교남 자연기자상	견자단: 〈엽문〉
우수시나리오상 (2명)	수샤오웨이: 〈육자매〉, 장빙: 〈대하(大河)〉	우수해외화교여 자연기자상	수치: 〈비성물요〉
우수남자 연기자상(2명)	장한이: 〈집결호〉, 스징린: 〈원용평〉	우수더빙영화상	〈쿵후 팬더〉
우수여자 연기자상(2명)	장즈이: 〈매란방〉, 판즈보: 〈돌발사건〉	우수디지털영화 상(4편)	〈18개의 수인(手印)〉 〈바둑왕과 아들〉 〈원촨〉 〈횡평수직(橫平豎直)〉
우수신인남자연 기자상	위샤오첸: 〈매란방〉	우수어린이영화 상(3편)	〈학교 가는 길〉 〈남학생 전기〉 〈2008년 구매〉
우수신인여자연 기자상	쉬쥘: 〈나의 왼팔〉	우수희곡영화상 (2편)	〈정앵구고(程櫻救孤)〉 (예극), 〈염리우성룡〉(경극)
우수남자어린이 연기자상	딩시리: 〈학교 가는 길〉	우수과학교육영 화상 (3편)	〈달탐험〉 〈발효법〉 〈가제 양식〉
우수여자어린이 연기장상	야오민: 〈나다모를 찾아서〉	우수영화기술상 (2편)	〈매란방〉 〈적벽〉
우수신인감독상	하이타오: 〈원촨〉	우수합작영화상 (4편)	〈엽문〉 〈적벽〉 〈화피〉 〈비성물요〉
우수신인시나리오 오상	추이민: 〈횡평수직〉	우수 애니메이션상 (4편)	〈쾌락분포(快樂奮跑)〉 〈개구장이 바오마〉 〈희양양과 회태랑〉 〈순록왕〉
우수영화음악상	왕리광: 〈집결호〉	우수기록영화상 (3편)	〈랑랑의 노래〉 〈인민지사〉 〈꿈의 2008〉

〈표6〉 2011년 제14회 화표장: 2009-2010년

수상부문	명단	수상부문	명단
우수극영화상 (10편)	〈당산대지진〉 〈진국대업〉 〈비천〉 〈양선주(楊善洲)〉 〈추지백화〉 〈산사나무의 사랑〉 〈강철피아노〉 〈진당위업〉 〈궈밍이(郭明義)〉 〈조씨고아〉	우수해외 화교감독상	천더선: 〈십월위성〉
우수감독상 (4명 2편)	왕자, 선동: 〈비천(飛天)〉, 한산평, 황지엔신: 〈진국대업〉	우수해외화교 남자연기자상	쩌우룬과: 〈공자〉
우수시나리오상 (4명 2편)	싱위엔펑: 〈노채〉, 둥처, 귀권리, 황신: 〈진당위업〉	우수해외화교 여자연기자상	우권늬: 〈세월신도〉
우수남자 연기자상(2명)	리쉬예진: 〈양선주〉, 거요우: 〈조씨고아〉	우수더빙 영화상	〈아바타〉
우수여자 연기자상(2명)	쉬판: 〈당산대지진〉, 나런화: 〈액길〉	우수디지털 영화상	〈백합〉
우수신인 남자연기자상	원장: 〈해양천당(海洋天堂)〉	우수어린이 영화상(3편)	〈별바다〉 〈친국에서 만나요〉 〈어린이들의 일〉
우수신인 여자연기자상	쩌우동위: 〈산사나무의 사랑〉	우수희곡 영화상	〈청풍정〉
우수남자어린이 연기자상	수자항: 〈별바다〉	우수과학교육 영화상(3편)	〈점목배양기술〉 〈소나무 선충〉 〈농촌방법상식〉
우수여자어린이 연기장상	사이다 아이허마יתי: 〈행복한 해바라기〉	우수영화 기술상(2편)	〈비천〉 〈당산대지진〉
우수신인감독상	장명: 〈강철피아노〉	우수합작 영화상(3편)	〈십월위성〉 〈공자〉 〈해양천당〉
우수신인 시나리오상	쉬에샤오루: 〈해양천당〉	우수애니메이 션상(4편)	〈서백파(西柏坡)〉 〈토협전기〉 〈토키마을의 여우〉 〈金沙城〉
우수영화음악상	쉬난: 〈진국대업〉	우수기록 영화상(3편)	〈장안가〉 〈중국삼협〉 〈조국지상〉

〈표7〉 2013년 제15회 화표장: 2011-2012년

수상부문	명단	수상부문	명단
우수극영화상 (10편)	〈중국합화인〉 〈1942〉 〈짜우언라이의 4일〉 〈실연 33일〉 〈신해혁명〉 〈충성과 배반〉 〈취엔쉬에션(錢學森)〉 〈금룡의 13소녀〉 〈수색〉 〈만전천심〉 〈경찰일기〉	우수해외화교 감독상	천커신: 〈중국합화인〉
우수감독상 (2명)	평사오강: 〈1942〉, 천리: 〈짜우언라이의 4일〉	우수해외화교 남자연기자상	자오요우탕: 〈수색〉
우수시나리오상 (2편)	창작시나리오 장이, 쨰우즈용: 〈중국합화인〉, 각색시나리오 리우전윈: 〈1942〉	우수해외화교 여자연기자상	에더쉬엔: 〈심플라이프〉
우수남자 연기자상(2명)	황샤오밍: 〈중국합화인〉, 리우즈빙: 〈충성과 배반〉	우수더빙 영화상	〈마다가스카르3〉
우수여자 연기자상(2명)	장즈이: 〈일대중사〉, 옌빙옌: 〈만전천심〉	우수디지털영 화상	*폐지
우수신인 남자연기자상	아왕런칭: 〈티벳의 하늘〉	우수어린이영 화상(4편)	〈달리는 나의 그림자〉 〈칭찬을 기대하지마〉 〈수능〉 〈청춘파〉
우수신인 여자연기자상	양즈산: 〈청춘에게〉	우수회곡 영화상	〈쇄린낭〉
우수남자 어린이연기자상	*폐지	우수과학 교육영화상 (3편)	〈기후온난화〉 〈암 탐험〉 〈수명연장〉
우수여자어린이 연기장상	*폐지	우수영화 기술상(2편)	〈1942〉 〈용문비갑〉
우수신인감독상	쉬정: 〈로스트 인 타이랜드〉	우수합작 영화상(5편)	〈심플라이프〉 〈콜드워〉 〈십이지동물상〉 〈일대중사〉 〈용문비갑〉
우수신인 시나리오상	정이: 〈변경풍운〉	우수애니메이 션상(4편)	〈극지탐험〉 〈대전원앙계〉 〈세계의 달력〉 〈잠수함총동원3〉
우수영화음악상	장다롱: 〈백조조봉(百鳥朝鳳)〉	우수기록영화 상(3편)	〈장진호〉 〈중국의 향촌〉 〈양망성공〉

우수영화촬영상 *신설	뤼러: 〈1942〉	*신설 우수소수 민족영화상	〈티벳의 하늘〉
우수농촌소재영 화상(2편) *신설	〈색도의생(索道醫生)〉 〈백조조붕〉	*신설 우수청년 영화상	〈청춘에게〉 〈변경풍운(邊境風雲)〉

- * 폐지된 부문: 어린이남자연기자상, 어린이여자연기자상, 우수디지털영화상
 ** 신설된 부문: 우수영화촬영상 〈1942〉, 우수농촌소재영화상 〈색도의사〉, 〈백조조붕〉,
 우수소수민족소재영화 〈티벳의 하늘〉, 우수청년영화창작상 〈청춘에게〉 〈변경풍운〉

화표장은 정부영화상이고, 심사기준을 '사상성'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이데올로기를 충실하게 재현하거나 표출하고 있는 주선울영화 중심으로 시상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정부포상인 만큼 우수작품상을 10편이나 선정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선전영화로써 당대 공산당과 정부의 국가이데올로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주선울영화이다. 또한, 우수감독상, 우수남여연기자상, 우수시나리오상 등은 각각 2편에 대해 공동수상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1편은 주선울영화, 1편은 주선울 경향의 대작 상업영화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주선울 우대 경향은 역대 최다 감독상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최다 감독상으로는 3번 수상한 천리(陳力) 감독인데, 2000년 〈환무〉, 2001년 〈월원금소〉, 2013년 〈쩌우언라이의 4일〉 등 일생을 주선울영화를 연출한 여성감독이다. 2번 수상한 감독들도 장야권, 휘지엔치, 인리(尹力), 평사오강 등인데, 대부분 주선울영화이거나 주선울을 표방하는 상업영화를 연출한 감독들이다.

역대 최다 연기상 수상자는 여배우로는 장즈이가 2005년 〈연인〉, 2009년 〈매란방〉, 2013년 〈일대종사〉로 3번 수상했으며, 위후이(于慧), 장원리, 판즈보(範之博), 쉬판 등의 여배우가 각각 2번 수상했다. 최다 남자연기상으로는 1996년 〈레이핑을 떠나며〉, 2002년 〈투게더〉 등에 주연한 리우페이치가 2회 수상했으며, 리쉬에지엔이 1998년 〈황공출세〉, 2011년 〈양선주〉로 2번 수상했다. 최다 시나리오상은 수샤오웨이(蘇小衛, 필명 思燕)로서 1991년 〈영가〉, 2009년 〈육남매〉로 2번 수상했으며, 그의 남편이자 감독인 휘지엔치 또한 감독상을 2번 수상한 바 있다. 기타, 2회 이상 수상자로는 평사오닝 감독으로 1997년 〈황화곡〉으로 감독상을, 2000년 〈황하절연〉으로 시나리오상을 수상했고, 영화배우 타오홍(陶紅)은 2002년

〈생활수〉로 연기상을, 2004년 〈38도〉로 영화주제곡상을 수상했다. 특이한 점은 화표장 수상자 중에는 부부수상자가 많다는 점이다. 휘지엔치 감독과 시나리오작가 수샤오웨이, 평사오강 감독과 배우 쉬관, 영화감독 사이푸와 마이리스 부부, 홍콩 영화감독 천커신과 여배우 우권늬 또한 부부수상자이다.

최근 화표장 수상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은 상업대작 영화의 수상이다. 화표장은 정부가 포상하므로 기본적으로 정부이데올로기를 표출하는 주선울영화에 포상이 집중되는 것이 어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수작품상, 연기자상 등 공동수상 부문에 주선울영화 외에 대작 상업영화를 포함시켜 화표장의 외연을 확장하고 대중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화표장은 주선울영화 중에서도 박스오피스 흥행이 좋은 주선울영화를 포상의 대상으로 삼되, 주선울 주제의식이 들어있는 대작 상업영화까지도 포상의 범위에 넣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시도는 최우수작품상, 우수작품상, 시나리오상, 남녀연기상 등에 공동수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서 여실히 알 수 있다.

최근의 이러한 화표장의 대중화 경향은 2011년 연기상을 수상한 배우 거요우의 수상 소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표장을 받을 줄 몰랐다. 화표장은 주선울영화제이며, 나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왔다. 아마도 〈조씨고아〉를 주선울로 간주한 모양이다. 화표장은 주선울 영화제이며, 금계장은 영화전문가상, 백화장은 관객들이 뽑은 상으로 의미가 각각 다르다」.²⁷⁾ 또한, 2011년 최우수작품상으로 대작 상업영화 〈조씨고아〉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라오슈광은, 「상업영화에는 상업요소뿐 아니라 상업성과 예술적 완성도의 결합, 창작과 제작의 균형을 중시한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²⁸⁾ 중국의 저명영화평론가 지아레이레이는, 「중국영화의 산업화 시대를 맞아, 화표장은 전통적인 주선울영화와 정치상의 요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장차 개개인의 꿈과 작금의 현실을 결합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²⁹⁾

이밖에, 청룡, 쩌우룽과, 우위선, 리우더화 등 홍콩과 타이완 스타들을 수상식에 초청하고 무대 위에 세움으로써, 양안삼지의 중화권을 적극 견인하려는 시도를 지

27) 〈第14屆華表獎口碑票房雙贏大篇上榜〉, 《文匯報》, 2011. 8. 30. 중국 바이두 검색 사이트. 2011년 제14회 중국영화화표장 수상 소감

<http://www.m1905.com/special/filmfest/th14hbchina/>

28) 〈第14屆華表獎獲獎影編巡禮〉, 《光明日報》, 2011. 8. 29.

29) 〈華表獎：中國電影的盛裝舞步〉, 《人民日報》, 2011. 8. 31.

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3회 6년 동안 화표장영화제를 살펴보면, 주선율영화에 대한 정부포상이라는 기본 취지 외에, 상업영화를 정부의 포상범위로 적극 끌어들여 대중화를 기하는 한편, 홍콩과 타이완 지역의 영화까지도 초청하고 포상함으로써 중화권의 문화적 일체감과 통일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문화정치학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³⁰⁾

IV. 영화제의 이데올로기 특징

중국 3대 국내영화제는 ‘예술성’의 금계장, ‘대중성’의 백화장, ‘사상성’의 화표장이라는 각각의 성격과 특색을 가지고 있다. 운영주체를 보면, 금계백화장은 중국영화인협회와 중국문련이, 화표장은 중국 정부기관(중국신문출판광전총국)이 주관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영화제는 정부영화상인 화표장뿐 아니라, 금계장과 백화장영화제에서조차 국가이데올로기 영화인 주선율 영화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 3대 국내영화제에 나타나는 공통된 이데올로기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주선율 중심의 영화제이다.³¹⁾ 3대 영화제의 최고 영예인 작품상 수상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선전영화인 주선율영화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회 6년 동안의 동안의 금계장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은 2009년 〈매란방〉〈집결호〉, 2011년 〈비천〉, 2013년 〈중국합화인〉〈쩌우언라이의 4일〉 등 주선율 영화가 다수

30) 최근 화표장의 이러한 경향에 대해 2014년 4월 베이징대학생영화제에서 만난 베이징 사범대학 예술학원 원장 쯤우싱(周星)교수는 「최근 화표장 수상 동향은 중국영화의 다양화 국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화표장은 현실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영화시장과 예술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영화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이다」고 말한다. 2014년 4월 8일 필자와의 인터뷰.

31) 주선율이라는 용어가 영화계에 등장한 것은 1987년 광전부가 주관한 전국영화창작단 회의에서 나온 용어로, 정부가 주도하여 창작한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정신을 고취시키는 영화를 말한다. 198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다룬 〈개국경전〉의 제작이 주선율영화의 이정표라 할 수 있다. 현재 주선율은 애국주의, 사회주의, 집단주의 등 전통적 정의에서 민족단결, 사회진보, 휴머니즘정신 등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포진하고 있으며, 8개나 상을 받아 역대 금계장 최다 수상을 자랑하는 영화 〈손중산〉, 6개를 차지한 〈대결전〉 〈개국대전〉 등은 모두 주선울 영화이다. 관객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백화장에서도 주선울 영화의 수상은 두드러진다. 최근 3회 동안의 작품상 수상을 보면, 2008년 〈집결호〉(최우수상), 〈운수요〉 〈숨겨진 날개〉(우수상), 2010년 〈건국대업〉(최우수상), 〈화물란〉 〈경천동지〉(우수상), 2012년 〈당산대지진〉(최우수상), 〈신해혁명〉(우수상)과 같이 주선울 영화이거나 주선울 주제의식이 깔려있는 대편(大篇, 블록버스터 상업영화)가 선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 3대 국내영화제는 ‘주선울을 위한, 주선울에 의한, 주선울의 영화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영화제 수상작에는 당대 공산당과 정부의 선전이데올로기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최근 6년간의 3대 국내영화제의 작품상 수상작으로는 금계장 5편, 백화장 3편, 화표장 30편이다. 역대 영화제 수상작의 공통점은 당대의 국가이데올로기와 정부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는 점이다.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 등장 이후 국가구호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몽(中國夢)에 대한 영화 〈중국합화인〉, 공산당과 사회주의혁명 정신 고취에 대한 영화 〈건국대업〉 〈쩌우언라이의 4일〉,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영화 〈신해혁명〉 〈집결호〉 〈비천〉, 휴머니즘과 도덕정신을 강조하는 영화 〈당산대지진〉 등 작품상 수상작에는 당대 중국의 국가이데올로기가 집중적으로 표출되는 영화로 구성되는 특징이 들어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 3대 국내영화제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국정방향과 가치관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영화제의 수상자가 대부분 주선울 영화에서 나왔다. 금계장의 경우, 평사오강, 천리, 홍콩의 천커신 감독, 백화장에서는 3회 연속 평사오강 감독이 수상했으며, 화표장에서는 평사오강, 천카이꺼, 왕자, 한산핑, 황지엔신, 천리 등이 감독상을 수상했다. 이 중에서 최다 감독상을 수상한 평사오강 감독은 2007년 〈집결호〉를 계기로 기존의 하세편(賀歲片) 코메디 풍격을 버리고 〈당산대지진〉 〈1942〉 등 중국현대사의 실제 사건과 역사를 영화로 재현하며 애국주의와 결합하는 범(汎) 주선울 영화를 연출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수상감독인 천리, 한산핑, 황지엔신 등은 대표적인 친정부 성향의 주선울 영화감독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특징은 연기상 수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최근 3회 동안 영화제를 살펴보면, 금계장 연기

상은 우강, 장원리, 순춘, 나련화, 황샤오밍, 장구어리, 송자, 백화장에서는 장한이, 리빙빙, 천쿤, 소유핑, 원장, 바이바이허, 손춘, 화표장에서는 장한이, 장즈이, 원장, 쩌우둥위, 황샤오밍 등이 수상했는데, 이들 중 절대 다수가 주선울 영화에 출연한 연기자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3대 국내영화제는 친정부 성향의 주선울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나 연기자들에 대한 포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영화상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와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포상제 도입 화표장을 제외하더라도, 금계장과 백화장을 둘러싼 언론과 영화인들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언급한 백화장 선정이다. 백화장은 전국 관객들의 투표를 통해 예비선정한 다음, 직업별 연령별 비례대표격인 101명의 심사위원단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인데, 영화제가 끝날 때마다 과연 최종심사단이 전체 대중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투표에 의한 수상작이 1편이 아니라 2개이거나 복수의 수상으로 진행될 때가 있어, 주최측의 이러한 의도에 대해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예술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금계장 작품상에서는 2009년 <집결호>와 <매란방>, 2013년에 <중국합화인> <쩌우언라이의 4일> 등 2편의 최우수작품상이 선정되어, 주선울 경향의 영화를 끼워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백화장에서도 연기상 부문에서는 주선울과 상업영화 배우들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2012년 남녀주연상은 <실연 33일>의 원장과 바이바이허가 수상하고, 남녀조연상에는 주선울 영화인 <신해혁명>의 손춘, 닝징이 수상하여 투표로 뽑는 백화장의 성격이 정치적으로 조율되었다는 뒷말이 무성하였다. 또한, 2010년도 여우조연상에는 관객들이 투표로 결정했음에도 주선울 영화에서 열연한 2명의 연기자 왕자(<경천동지>), 쉬칭(<건국대업>)가 공동수상하여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와 같이, 영화전문가들이 선정하는 금계장과 관객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백화장에서 심사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섯째, 3대 영화제에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박스오피스 흥행 상위권 작품들이 거의 배제되어 있다. 심지어, 대중들이 투표로 선정하는 백화장에서도 영화시장 박스오피스 최고 흥행작들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할 수 있다. 관객 투표로 뽑는 백화장에서 2010년-2013년 영화시장 최고 흥행작인 <로스트 인 타이랜드>, <화피2>, <소시대>, <청춘예계>, <서유기> 등이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정이다. 이에, 영화제들은 궁리, 쟁즈이, 쩌우룬과, 리우더화 등 글로벌 스타들을 대거 동원하여 영화제의 대중성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섯째, 영화제 수상 범위가 대륙뿐 아니라 홍콩, 타이완 등 양안삼지(兩岸三地)와 화교로 점차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부포상영화제인 화표장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2009년부터 화표장에서는 우수합작영화상 외에 우수해외화교영화인에 대한 연기상, 감독상 등을 새로 신설하여, 청룽, 우위선, 쩌즈단, 수치, 우권뉘, 쩌우룬과, 천더선, 천커신, 왕자웨이 등 홍콩과 타이완 등 양안삼지의 영화인들에게 대거 수상하고 있다. 중국 3대 국내영화제에서 중화권 배우에 대한 포상확대와 영화제 기간 스타배우의 초청은 중화권 양안삼지의 문화적 일체감과 중화민족주의를 구현하려는 중국 정부의 문화정치적 욕망이 개입된 결과로 보여진다.

V. 나가며

지금까지 중국 3대 국내영화제의 현황과 이데올로기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이들 영화제는 '예술성의 금계장, 대중성의 백화장, 사상성의 화표장'으로 차별성을 가진 영화제로 구별되고 있지만, 운영주체와 심사위원의 구성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사실상 주선올영화 중심의 영화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 3대 국내영화제의 수상작과 명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입증되었는데, 영화제의 수상작에는 애국주의, 사회주의혁명정신, 중화민족주의, 중국몽 등 당대 공산당과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이데올로기가 투영되어 있고, 영화제는 이들을 전시하는 관방 문화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영화제에 중국 대륙뿐 아니라 양안삼지와 화교 스타영화인을 동원하고 포상함으로써 중화권의 문화적 통일과 중화민족주의의 구현이라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점도 특징적 현상이다.

3대 영화제가 갖는 이러한 경향은 운영주체가 국가권력에서 독립된 영화인들이 아니라, 정부(화표장)이거나, 아니면 공산당과 관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는 중국영화인협회(금계장, 백화장)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국, 중국 3대 국내영화제는 정부와 관방기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

며, 이들의 의도에 충실한 영화제로 진행됨으로써, 국가이데올로기 영화에 대한 대대적인 포상과 격려가 이루어지는 전시성 축제로 변모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라는 중국 3대 영화제의 특징은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개입하고 관장할수록, 주선율을 강조하고 대중영화를 확대할수록, 영화제에 대한 자발적 대중 참여와 글로벌한 개방성은 점점 더 멀어져가는 자기모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영화제측은 더 많은 대중과 더 넓은 개방을 원하며 대중영화와 글로벌 스타영화인들을 총동원하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주선율 중심의 국가이데올로기 문화축제라는 영화제의 궁극적 목표와 역주행하는 자기모순을 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 3대 국내영화제는 국가이데올로기 전시의 문화축제로 기획되고 탑다운식으로 운영되면서, 일정한 이데올로기 선전효과를 거두는데 성공했지만, 국가이데올로기 전시장으로 영화제를 활용하려는 정부의 기획목표와 더 많은 대중성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영화제의 당면 현실이 갈수록 충돌하고 괴리되는 현상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3대 국내영화제는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영화주체인 관객과 영화인의 자발적 참여와 권리를 더욱 확대하고 보장하는 정책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參考文獻】

〈국문자료〉

강소원, 〈부산국제영화제의 아시아 관련 프로그램의 변화와 그 성격과 의미에 대한 연구: '개/폐막식', '아시아영화의 창', '뉴커런츠'를 중심으로〉, 2009.

김종국, 〈서구 유럽영화제의 사회정치적 맥락〉, 《언론학연구》, 18권, 2014.

송낙원, 〈영화제 이론과 평가 방법론에 대한 연구: 서울시 지원 영화제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54호, 2013.

이지연, 〈국제영화제와 현대 중국 영화의 어떤 경향〉, 《영화》, 4권, 2012.

〈중문자료〉

中國電影家協會, 《中國金鷄百花電影節20年: 1992-2011》, 中國電影出版社, 2011.

〈第23屆金鷄百花電影節9月上約蘭州〉, 《每日甘肅省》, 2014. 6. 9.

- 〈金鷄百花電影節最佳故事片獎下“雙黃蛋”〉,《中國網》, 2013. 9. 28.
 〈第22屆金鷄百花電影節述評〉,《中國網》, 2013. 9. 30.
 〈2013金鷄百花電影節瘦身述變“宿骨鷄”〉,《新快報》, 2013. 9. 26.
 〈金鷄百花獎電影節恢復最佳編劇獎〉,《北京晚報》, 2012. 9. 27.
 〈金鷄百花: 需要觀眾多一點耐心〉,《中國文化報》, 2012. 10. 11.
 〈第14屆華表獎口碑票房雙贏大篇上榜〉,《文匯報》, 2011. 8. 30.
 〈第14屆華表獎獲獎影編巡禮〉,《光明日報》, 2011. 8. 29.
 〈程青松批金鷄獎不專業: 評委老化跟不上時代〉,《揚子晚報》, 2011. 10. 24.
 〈金鷄獎冷成了“金水箱”?〉,《重慶商報》, 2011. 10. 25.
 〈評論: 中國只有101個電影觀眾?〉,《深圳商報》, 2010. 10. 18.
 〈編劇要爭百花獎, 那別的行當呢?〉,《深圳商報》, 2010. 10. 12.
 〈評論: “百花獎”101名觀眾評委能否代表大眾?〉,《沈陽日報》, 2010. 10. 17.
 〈評論: 遙望釜山, 金鷄百花差在哪裡?〉,《遼沈晚報》, 2010. 10. 18.
 〈金鷄百花獎電影節兩大論壇“冷”氣十足〉,《深圳特別報》, 2010. 10. 14.

〈기타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 <http://www.biff.kr/>

중국영화가협회 홈페이지, <http://www.cflac.org.cn>

【中文提要】

本論文的目的是以調查對於中國三大國內電影節的主辦機關、旨意、運作方式、辦獎等分析電影節的特點和意識形態。具體的研究對象是金鷄獎電影節、百花獎電影節、華表獎。

在中國三大電影節中發現的共同的特點是：第一、以主旋律電影為中心的電影節，第二、在獲獎的作品當中看到呈現當代中國共產黨和政府的意識形態，第三、大多數獲獎的作品就是主旋律電影，第四、繼續發生頒獎的公平性問題，第五、不一致頒獎和觀眾喜愛的作品，第六、頒獎的範圍越來越從中國大陸擴大兩岸三地。

這電影節具有所謂‘藝術性的金鷄獎電影節’、‘大眾性的百花獎電影節’、‘思

想性的華表獎’各个的特点和區別，但因為運作主辦和評委的官方性，實際上以主旋律為中心電影節。在獲獎的影片上顯露愛國主義、社會主義革命精神、中華民族主義、中國夢等当代政府的宣傳意識形態，這電影節為展示政府意識形態的官方節日。另外，三大電影節正在不但動員中國內地，而且也擴大動員香港和台湾同胞，追求中華民族的團結和文化統一。

總体來說，中國三大電影節主導政府和官方机构，對一致國家價值觀的作品的獲獎的意識形態節日。

【主題語】

中國電影，電影節，金鷄獎，百花獎，華表獎，中國電影家協會，主旋律，意識形態，中國夢

투고일: 2014. 7. 13 / 심사일: 2014. 7. 20~8. 5 / 게재확정일: 2014. 8. 10